

# 2019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정답

1	③	2	③	3	③	4	⑤	5	⑤
6	⑤	7	①	8	④	9	④	10	③
11	③	12	③	13	⑤	14	④	15	③
16	④	17	④	18	②	19	⑤	20	③
21	⑤	22	②	23	④	24	③	25	④
26	④	27	①	28	②	29	②	30	②
31	④	32	⑤	33	⑤	34	①	35	④
36	①	37	④	38	②	39	②	40	②
41	⑤	42	①	43	①	44	⑤	45	①

#### 해설

##### \*\* 화법 \*\*

#### 1.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2문단에서 발표와 관련된 ‘박석’의 의미를 설명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① 2문단 첫 문장에서 청중의 배경지식을 묻고 있으나 이에 따라 발표 내용을 조절하고 있지는 않다. ④ 청중의 배경지식 등을 확인하는 발표 학생의 질문만 있을 뿐 청중의 질문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2. [출제의도] 발표 계획 파악하기

사진을 제시하거나 활용한 부분은 2문단과 4문단이지만, 2문단의 사진은 박석의 의미를, 4문단의 사진은 박석의 표면이 수막현상을 약화시킨다는 박석의 효용성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다. 박석의 한계를 제시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① 2문단에서, ② 3문단에서, ④ 5문단에서, ⑤ 6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 [출제의도] 발표에 대한 청중의 반응 파악하기

청자 3의 ‘임금이 다녔던 길’은 2문단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므로,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청자 1은 발표 내용의 수막현상을 언급하며 수막현상이 생기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② 청자 2는 창덕궁의 박석과 관련된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박석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추가하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④ 청자 1은 비오는 날 미끄러워서 걷기 힘들었던 경험을, 청자 3은 지난주 경복궁에서 박석이 깔린 길을 걸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발표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

##### \*\* 화법·작문 \*\*

#### 4. [출제의도] 회의의 흐름 파악하기

㉔에서는 마지막 문단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제안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있지 않다.

① ㉔은 동아리 선배를 강연자로 초청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② ㉔은 ○○○ 작가를 초청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축제에 이 작가의 시에 가장 많은 감상평이 달렸던 사실을 환기하고 있다. ③ ㉔은 문학 평론집이 아닌 문학 교과서에 실린 시를 낭송하자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④ ㉔은 부담이 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상대의 의도를 자신이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고 있다.

#### 5. [출제의도] 회의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학생 2가 글에 들어갈 내용으로 행사 목적 및 작가 이력을 포함하자고 언급한 것에 대해 학생 3은 행사 목적의 포함은 인정하면서도 작가 이력은 글이 아닌 강연 안내 자료에 실자고 말하고 있다.

#### 6.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반영 여부 파악하기

강연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은 4문단에 있지만, 질의응답 시간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감은 들어 있지 않다.

① 행사 목적과 글을 쓰게 된 이유는 1문단에, ② 축제 때 전시한 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과 강연자로 초청하고 싶은 이유는 2문단에, ③ 행사 계획 제시를 통한 행사 안내는 3문단에, ④ 낭송할 시와 시 낭송의 취지는 4문단에 반영되어 있다.

#### 7.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글쓰기

상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사를 물어보는 질문의 형식을 사용하고 라디오의 노랫소리로 작가를 맞이하는 마음을 표현하여 강연자로 초청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②, ③은 작가를 맞이하는 마음을 소리로 표현하지 않았고 ④의 ‘풀벌레 소리’는 작가를 맞이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며 ⑤는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 \*\* 작문 \*\*

#### 8. [출제의도] 작문 전략 파악하기

5문단에서는, ‘고궁 무료 관람 혜택 대상에서 퓨전 한복을 제외하자’는 주장이 실현되었을 때, 사람들이 전통 한복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전통 한복이 살아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9. [출제의도] 자료 활용하기

ㄱ-1은 전통 한복의 선호도가 낮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ㄴ은 전통 한복의 가격을 낮추는 방안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품질이 떨어진다는 퓨전 한복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이다. 그러므로 ㄱ-1과 ㄴ을 활용하여 전통 한복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전통 한복의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추가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ㄱ-1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전통 한복에 비해 퓨전 한복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함을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1문단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② ㄴ은 외국인 관람객들이 퓨전 한복을 전통 한복으로 오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3문단의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③ ㄴ은 품질이 떨어진다는 퓨전 한복의 불편함으로 인해 전통 한복도 불편할 것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생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퓨전 한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추가할 수 있다. ⑤ ㄱ-2는 전통 한복을 체험한 외국인 관람객의 92%가 전통 한복 체험에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며, ㄴ은 전통 한복을 체험하거나 직접 본 외국인들이 전통 한복에서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반응이 담긴 자료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전통 한복을 입도록 장려하는 것이 외국인들에게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알리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 10. [출제의도] 반박의 적절성 파악하기

[A]는 전통 한복에서 멀어진 형태의 퓨전 한복

이 늘어나 전통 한복의 훼손이 심해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보기>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당대 여성들의 욕구로 인해 복식의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보기>를 활용하여 우리의 한복도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 왔음을 보여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변화를 존중하자는 내용으로 [A]를 반박할 수 있다.

##### \*\* 문법 \*\*

#### 11. [출제의도] 구와 합성어 구별하기

‘뜯어먹다’는 ‘뜯어’와 ‘먹다’ 사이에 ‘서’를 넣을 수 있으므로 ㉔에 해당하여 사전에 표제어로 실리지 않는다.

① ‘헨가방’은 ‘헨 내 가방’과 같이 중간에 다른 말이 끼어들 수 있으므로 ㉔에 해당하며 사전에 표제어로 실리지 않는다.

② ‘놓고가다’는 ‘놓고’와 ‘가다’ 사이에 ‘서’를 넣을 수 있으므로 ㉔에 해당하며 사전에 표제어로 실리지 않는다.

④ ‘뜯소문’은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이라는 의미로 중간에 다른 말이 끼어들면 의미가 변하므로 ㉔에 해당하여 사전에 표제어로 실린다.

⑤ ‘알아듣다’는 ‘남의 말을 듣고 그 뜻을 알다’의 의미로 구성 요소의 배열이 순차적이지 않아 ㉔에 해당하는 합성어이며, 합성어는 사전에 표제어로 실리므로 적절하다.

#### 12. [출제의도] 의존 명사, 조사, 어미의 띄어쓰기

‘읽는데’의 ‘데’는 데 「의존 명사」 「2」의 ‘일’이나 ‘것’의 의미이며 ‘읽는’이라는 용언의 관형사형인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는 의존 명사이므로 ‘읽는’과 ‘데’ 사이를 띄어 ‘읽는 데’로 써야 한다.

② ‘가는데’의 ‘데’는 뒤 절에서 비가 오기 시작한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상관되는 상황인 ‘학교에 가는 상황’을 미리 말하기 위해 사용한 연결 어미 ‘-는데’의 일부이다. 따라서 어간 ‘가-’에 ‘-는데’라는 어미가 결합한 것이므로 ‘가는데’로 붙여 써야 한다.

#### 13. [출제의도] 음운 변동 탐구하기

ㄷ의 ‘울여름’은 ㄴ첨가, 유음화가 일어나므로 두 번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만, ㄴ의 ‘해돋이’는 구개음화만 일어나므로 두 번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① ㄱ의 ‘신라’는 앞의 음운인 ‘ㄴ’이 뒤의 음운인 유음 ‘ㄹ’의 성질을 닮아 유음 ‘ㄹ’로 변동되었고, ㄴ의 ‘국물’은 앞의 음운인 ‘ㄱ’이 뒤의 음운인 비음 ‘ㅁ’의 성질을 닮아 비음 ‘ㅇ’으로 변동되었다.

② ㄱ의 ‘신라’는 ‘ㄴ’이 ‘ㄹ’로 바뀌는 교체 현상이 일어나고, ㄷ의 ‘울여름’은 ㄴ첨가가 일어나 [울려름]이 되고 뒤의 음운 ‘ㄴ’이 앞의 음운 ‘ㄹ’의 영향으로 ‘ㄹ’로 바뀌는 교체(유음화)가 일어나 [울려름]이 된다.

#### 14. [출제의도] 중의성의 원인과 해소 방법 탐구하기

ㄱ은 ‘친구가 일부가 오지 않았다’와 ‘친구가 한 명도 오지 않았다’로 해석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모두’를 ‘아무도’나 ‘일부’ 등의 단어로 교체하거나 ‘친구가 모두 오지는 않았다.’와 같이 본용언 뒤에 보조사 ‘는’을 사용한다. ㄴ은 ‘울면서’의 주체가 ‘그’나 ‘그녀’로 해석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가 떠나는 그녀를 울면서 안아 주었다.’와 같이 어순을 바꾼다.

#### 15. [출제의도] 중세국어 ‘의/의’의 양상 파악하기

‘거부비 터리 곤고’에서 ‘의’는 관형격 조사로 사용되었고, 앞 단어 ‘거북’의 마지막 음절의 모음

이 음성 모음이므로 ‘의’의 형태로 실현된 것이다. ‘바미 비취니’에서 ‘의’는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고, 앞 단어 ‘밤’의 모음이 양성 모음이므로 ‘의’의 형태로 실현된 것이다.

**\*\* 과학·인문 \*\***

□ 출전: 토머스 S. 쿤, 『과학혁명의 구조』

**16. [출제의도] 글의 내용 이해하기**

라부아지에는 플로지스톤 패러다임을 부정하였으나 금속을 산에 녹일 때 나온 기체가 가연성을 띤다는 캐번디시의 실험 결과를 반박한 것은 아니다.

③ 2문단에 제시된 플로지스톤을 잃은 물질의 특성을 고려하면, 플로지스톤 패러다임에서는 연소 현상, 금속이 녹스는 현상, 음식이 소화되는 현상을 모두 플로지스톤이 빠져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2문단에 따르면 플로지스톤은 물질의 잘 타는 속성과 관련이 있으며 녹슬지 않은 금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물질이다. 캐번디시는 금속을 산에 녹일 때 발생한 기체가 매우 잘 타는 성질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녹슨 금속이 아닌 금속에서만 이 기체가 추출됨을 통해 ‘이 기체는 금속에 있던 플로지스톤이 빠져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18. [출제의도] 글의 내용 추론하기**

플로지스톤 패러다임에서는 금속이 녹스는 현상을 플로지스톤이 빠져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이해대로라면 금속이 녹슨다는 것은 무엇인가 빠져 나가는 것이므로 금속이 녹슬면 금속의 질량은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라부아지에는 금속이 녹슬 때 질량이 변화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플로지스톤 이론에 ‘의문’을 가졌다고 했으므로 실제로는 질량이 증가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 라부아지에가 갖게 된 의문으로 ‘금속이 플로지스톤을 잃어 녹슨 것이라면 녹슬기 전보다 질량이 줄어들어야 하지 않을까?’를 제시한 ②는 적절하다.

**19. [출제의도] 제시 자료 분석하기**

6문단에 따르면, 라부아지에는 프리스틀리의 실험이 물 위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형성된 물을 관찰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았다. 이는 물 위에서 실험했다고 해서 새로운 물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형성된 물을 관찰하기가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② 4문단에 따르면, 프리스틀리는 금속회가 금속이 되는 과정에서 수위가 상승하는 것은 가연성 공기가 소모되는 증거라고 보았다.

**20.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1, 8문단에 따르면, 쿤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기존의 패러다임을 비교 평가할 논리적 기준이 있을 수 없으므로 두 패러다임 중 어떤 패러다임이 우월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보기>의 경우, 이전에 설명되지 못했던 문제들이 새로운 이론으로 설명된 사례들을 언급하며 쿤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새로운 이론이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점을 들어 패러다임 간의 우월성은 존재한다는 내용의 ③은 적절하다.

**21.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하나의 이론 체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 행위이므로’의 ‘받아들인다’는 어떠한 것을 받아들인다는 맥락에서 쓰였으므로 ‘수용(受容)한다’는 파바귀 쓸 수 있다.

④ ‘패러다임이 바뀌었다’의 ‘바뀌었다’는 ‘원래 있던 것을 다른 것으로 대신하게 하다’는 의미로 쓰였다. ‘전도(顛倒)되었다’는 원래와 달리 거꾸로

되었다는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시가 복합 \*\***

□ 출전: (가) 오규원,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 순례 11』  
(나) 나희덕, 『푸른 밤』  
(다) 정철, 『속미인곡』

**22.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는 ‘살아 있는 것’인 ‘줄기’, ‘잎’ 등이 ‘바람’ 속에서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살아 있는 몸’임을 증명한다는 점이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주제를 강화한 것이고, (다)는 ‘낙월’이 대상을 비준다는 속성을 통해 임을 따르겠다는 주제를 강화한 것이다.

① (가), (나) 모두 현실 자각은 있으나 이를 통한 미래에 대한 기대는 찾을 수 없다. ③ (다)에는 부정적 상황은 있으나 이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23. [출제의도] 시의 내용 파악하기**

<보기> ㉠의 ‘함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내용은 (가)에서 찾을 수 없다.

① 1연을 통해, ② 2연을 통해, ③ 1연을 통해, ⑤ 3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4.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 파악하기**

㉠의 ‘바람’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시련과 고통이라는 부정적 의미와 존재의 본질을 깨닫게 해 주는 자극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띠고 있는 소재이므로 이는 화자가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고, ㉡의 ‘바람’은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부정적 의미를 띠고 있는 소재이므로 이는 화자가 벗어나고 싶어 하는 상황이다.

**25.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하기**

㉠의 ‘불쌍한 그림자가 날 따를 뿐이로다’에서는 꿈속에서나마 보았던 입을 꿈이 깨면서 보지 못하게 된 한탄이 드러난 부분으로 소중한 인연을 지켜내기 위해 어려움을 참고 견디겠다는 화자의 의지는 확인할 수 없다.

**26. [출제의도] 시구의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반벽청등’을 통해 화자의 인식 변화를 부각하고 있지 않다.

① ‘들판의 ○○ 하나’라는 유사한 구조의 반복을 통해 ‘슬픔’, ‘고독’, ‘고통’이라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② ‘꽃’이 몸을 기울인다고 하는 비유를 사용하여 나의 마음이 너에게로만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③ 객관적 상관물인 ‘빈 배’를 통해 화자의 쓸쓸하고 외로운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⑤ ‘계성’, 즉 닭소리라는 청각적 심상 때문에 화자가 꿈에서 깨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고전소설 \*\***

□ 출전: 작자 미상, 『두견전』

**27.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이해하기**

‘주인은 동쪽 계단에 읊하고 객은 서쪽 계단에 올라 상좌를 다투’는 상황에서 토끼가 ‘연치’를 기준으로 자리를 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② ‘여우’는 ‘두꺼비’를 ‘흉간한 놈’이라 언급하며 노루의 잔치에 초대되어 상황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꾸짖고 있다. ③ ‘노루’는 ‘여우’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호패를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④ ‘장 선생’이 ‘장 선생 말손자’에게 말하는 장면에서 ‘네 아버지’ 곧 ‘장 선생 말손자’의 아버지가 ‘백호산군’에 의해 죽을 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노루’는 ‘내가 나이 많아 허리가 굽었노라’를 통해 자신의 나이가 많음을 주장하고 있다.

**28.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A]의 ‘토끼’는 잔치에 초대된 동물들이 상좌를 차지하기 위해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운 상황을 무례하다고 지적하고, [B]의 ‘여우’는 노루가 요구한 호패에 대해 소년 시절에 호패를 떼어 지금까지 찾지 못했다는 변명을 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29.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의한 작품 감상하기**

‘노루’가 동조한 ‘토끼’의 기준은 신분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질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노루를 기존의 신분 질서를 옹호하는 인물로 볼 수 없다.

① 장 선생 말손자가 잔치에 산중의 왕인 ‘백호산군’을 부르지 않으면 훗날 화가 될 듯하다고 말하지만 장 선생이 ‘산군’이 잔치에 오면 손님이 겁이 나고 두려워할 것을 염려하며 청하지 아니함이 마땅하다며 말하고 있는 장면에서 기존의 신분 질서가 약화된 사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두꺼비’가 부채로 서안을 치며 한시를 읊는 내용을 통해 자신이 유식한 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여우’가 ‘두꺼비’의 ‘껍질’은 왜 우물투물하고, ‘눈’은 왜 그리 노랑고, ‘목정’은 왜 움츠러졌는지 물어보며 상대의 외양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예술 \*\***

□ 출전: 박순기, 『결정적 순간』

**30.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 이해하기**

1,2,3문단을 통해 브레송이 말한 ‘결정적 순간’의 의미를 설명한 후에 4문단에서 ‘결정적 순간’이 마크 코헨에게 미친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31.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4문단에서 마크 코헨은 광각 렌즈를 부착한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더 알고 싶은 내용이라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브레송의 사진에 회화가 미친 영향은 2문단에서 설명한 내용이므로 알게 된 점이라고 정리한 것은 적절하다. ② 브레송의 사진에 주로 사용된 구도는 2문단에서 설명한 내용이므로 알게 된 점이라고 정리한 것은 적절하다. ③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이 갖는 예술사적 의의는 5문단에서 설명한 내용이므로 알게 된 점이라고 정리한 것은 적절하다. ⑤ 마크 코헨의 대표 작품은 글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더 알고 싶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다.

**32.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유동성에 기반한 브레송과 달리 마크 코헨은 돌발성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결정적 순간을 포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① 브레송이 내용과 구성이 조화를 이룬 순간을 촬영하였다는 내용은 3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다. ② 브레송은 화각이 인간의 시야와 가장 비슷한 표준 렌즈를 주로 사용해 사람의 눈높이에서 촬영했다는 내용은 2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다. ③ 마크 코헨은 사람들에게 돌발적으로 접근해 독특하면서도 기발한 결정적 순간을 포착했다는 내용은 4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다. ④ 마크 코헨은 플래시를 활용하여 눈으로 보는 세상과는 다른 자신만의 결정적 순간을 포착했다는 내용은 4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다.

**33.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남자와 포스터 속 댄서를 좌우 대각선에 배치한 것은 미리 계획한 구도에 변화를 준 것이 아니다.

① <보기>의 ㉠의 큰 움직임과 배경인 물에서 동과 정의를 대비를 보여 준다. ② <보기>의 ㉡와 ㉢는 그림자와 각각 상하 대비를 보여 준다. ③ <보기>의 ㉣에서 삼각형과 오각형, ㉤에서 원, 사다리에서 사각형을 사용하여 기하학적 구도를

이론 모습을 보여 준다. ④ <보기>의 오른쪽 그림에서 남자와 그림자가 3:2의 비율로 분할된 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사회 \*\***

□ 출전: 김현남, 『월간회계』

**34.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정부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는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1문단에서 확장적 정책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긴축적 정책은 경기 과열이 우려될 때라고 설명하고 있다. ③ 3문단에서 투기적 화폐 수요가 늘어나면 투자 수요가 거의 증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④ 2, 3문단에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국민 소득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⑤ 1문단에서 정부는 재정정책을,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활용함을 알 수 있다.

**35.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4문단에서 ㉠은 정부의 재정 지출이 지출의 몇 배나 되는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므로, 투자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4문단에서 ㉠은 정부가 재정정책을 펼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여 시중의 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6.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국내 사정으로 정부가 긴축적 재정정책을 사용하였다면 1문단을 통해 경기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으며, 정부 지출을 줄이면 시중의 통화량이 감소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이후 대외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을 사용하였다면 1문단을 통해 긴축적 통화정책임을 알 수 있고, 다시 경기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임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1문단을 통해 긴축적 통화정책에서는 이자율을 올린다는 것도 알 수 있다.

**37. [출제의도] 중심 내용이 적용된 그래프 이해하기**

<보기>에서 총생산의 증가가 소득이 증가한 것이라고 가정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국민 소득의 변화에 따른다는 것은 그래프의 가로축인 총생산 값의 변화에 따른다는 것이고 이에 따른 화폐 수요의 기울기는 (가)보다 (나)가 완만하다. 이를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쳤을 때 총생산 값의 증가 즉 소득의 증가가 화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음을 알 수 있다. 3문단에서 케인스주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여 국민 소득은 증가하지만, 소득의 변화가 화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에 화폐 수요도 작게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므로 (나)는 ‘케인스주의’의 주장을 나타낸 그래프임을 알 수 있다.

①, ②, ③ <보기>에서 정부 지출을 통해 총생산이 증가됨을 고려할 때, (가)가 (나)보다 총생산 증가에 따른 화폐 수요가 더 크게 변화하고 이에 따라 이자율의 변화가 큼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가 (나)보다 이자율의 변화에 따른 투자 수요의 기울기가 커 투자 수요의 변화가 큼도 알 수 있다. 2문단에서 통화주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쳤을 때 국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화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이에 영향을 받아 이자율이 매우 높게 상승한다고 보았고, 3문단에서 케인스주의는 통화주의보다 화폐 수요가 작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이자율이 낮게 상승하여 투자 수요가 작게 감소할 것이라고 보았으므로 (가)는 ‘통화주의’ 그래프임을 알 수 있다.

⑤ <보기>에서 G는 이자율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정부 지출을 통해 총생산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 지점임을 알 수 있다. 그래프에 나타난 예상 총생산 지점에서 결과적인 총생산 값을 비교할 때 (나)의 재정정책 활용 이후의 결과인 ㉠의 총생산 값이 (가)의 재정정책 활용 이후의 결과인 ㉡의 총생산 값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의 그래프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가)보다 큼을 알 수 있으므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지한 ‘케인스주의’ 그래프임을 알 수 있다.

**38.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제시문에 사용된 ‘올라가다’는 ‘값이나 통계 수치, 온도, 물가가 높아지거나 커지다’의 의미로 ②에서 동일하게 쓰였다.

① ‘지방에서 중앙으로 가다’, ③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가다’, ④ ‘물의 흐름을 거슬러 위쪽으로 향하여 가다’, ⑤ ‘기세나 기운, 열정 따위가 점차 고조되다’의 의미이다.

**\*\* 현대소설 \*\***

□ 출전: 김원일, 『노을』

**39.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하기**

‘나’가 삼돌이삼촌과 배도수씨처럼 아버지도 장터마당에서 사라질까봐 걱정하는 내용은 있으나 ‘나’가 비밀을 지키지 못해 삼돌이삼촌과 배도수씨가 가족과 헤어져 살게 되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나’는 어젯밤에 아버지가 미창에 갔다는 것을 비밀로 여기고 있을 뿐이다.

③ ‘아버지 바지는 ~ 생각이 들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치모 말처럼 ~ 있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가 선달바우산의 개울에서 횃가루 묻은 아버지의 바지를 찾아내면서 어젯밤 아버지의 행적을 알게 되므로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은 콩뜰이의 말 때문에 미창에 써 있는 글씨가 ‘나’의 아버지가 쓴 글씨가 아닐까 추측하는 장면이다. 여기에서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아버지에게 대한 ‘나’의 수치심은 확인할 수 없다.

① ㉠에는 아버지의 행적을 빨리 확인하고 싶은 ‘나’의 조바심이, ③ ㉡에는 짐작했던 아버지의 행적을 실제로 확인한 ‘나’의 막막함이 드러나 있다. ④ ㉢에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나’와 갑득이가 겪게 될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드러나 있으며, ⑤ ㉣에는 나머지 울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나’의 책임감이 드러나 있다.

**41.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나’는 고향에 돌아와 ‘노을빛’을 단순히 핏빛의 붉은색만이 아닌, 진노란색, 옅은 푸른색, 회색 등 여러 가지 색이 섞여 있다고 인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노을빛’은 인물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자각한 인식이 투영되어 있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42.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의한 작품 감상하기**

‘나’가 아버지가 ‘어젯밤에 미창에 갔다’는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행적이 사람들에게 밝혀져 ‘나’와 갑득이가 의지하고 살 사람이 없어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여기에서 유년의 ‘나’가 이데올로기에 휩쓸린 아버지에게 대해 연민을 느끼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② ‘나’의 슬픔은 아버지의 주변 인물로서 ‘나’가 느끼는 고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는 스물아홉 해 만에 고향에 돌아와 고향을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모태’라고 인정하면서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고향을 ‘나’의 뿌리라고 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아들 ‘현구’ 눈에 비친 고향을

더 이상 상처 깊은 고향이 아닌, 내일을 예비하는 고향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시나리오 \*\***

□ 출전: 이정향 극본, 『집으로』

**43.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하기**

상우는 홀로 남을 할머니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생각하여 모든 바늘에 실을 꿰어 놓고 로봇그립엽서에 ‘아프다’, ‘보고싶다’라는 단어를 써 두고 돌아간다.

② 상우는 S#83에서 글씨를 쓰지 못하는 할머니에게 ‘상우가 할머니가 보낸 건 줄 알고 금방 달려올게.’라고 이야기한다. 상우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③ 상우는 S#63에서 할머니가 ‘땀에 전 얼굴’인 것을 보고 장터에서 동네 정류장까지 걸어왔다는 것을 알아챈다. ④ 할머니가 상우와 함께 서울로 올라가려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S#87에서 할머니는 ‘아쉬움에 차를 쫓’을 뿐이다. ⑤ 할머니와 상우가 수화로 인해 갈등을 겪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44. [출제의도] 장면의 의미 파악하기**

상우와 할머니는 ㉢에서 헤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지만, 심리적 거리는 가깝다.

① ㉠은 상우와 할머니의 심리적 거리감을 물리적인 거리로 보여 주는 장면이다.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가 가깝지 않은 것을 두 인물이 떨어져 걷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의 ‘정류장’은 상우와 할머니가 집으로 가는 동행의 출발점이며,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는 가깝지 않다. ④ 상우와 할머니는 ㉢에서 만나고, 상우가 할머니의 보따리에 넣어주는 초코파이를 통해 인물 간의 가까워진 심리가 드러난다.

**45. [출제의도] 시나리오의 촬영 및 편집 계획 파악하기**

시나리오를 영상화할 때 인물을 멀리서 촬영하는 방법을 통해 인물의 표정을 강조하기 어렵다.

② 허름한 의상을 통해 할머니의 경제적 상황을 드러낼 수 있고 ③ 배우의 연기를 통해 인물의 복합적인 심정을 드러낼 수 있다. ④ 슬픈 배경음악을 통해 인물의 감정에 공감하도록 할 수 있으며 ⑤ 마지막 장면을 서서히 어두워지게 편집하는 것은 관객에게 여운을 남기는 데 효과적이다.